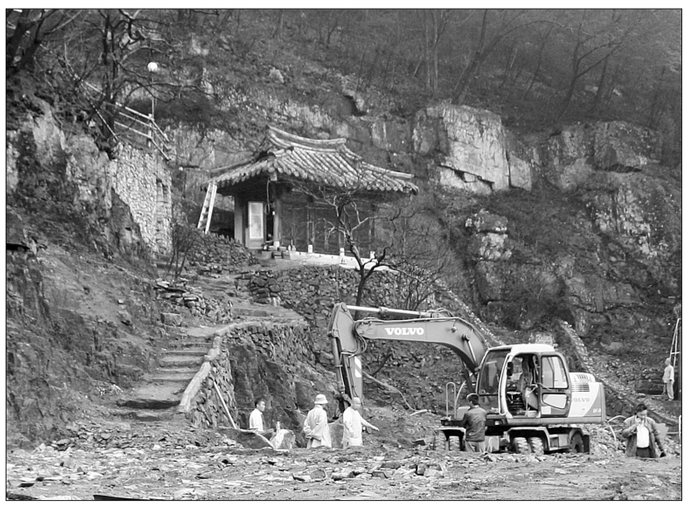


지난 3일 발생한 화재 이후 진주 성전암 모습. 현재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진주 성전암 화재 "기독교 광신도 소행"

성공스님 "봉축법요식 여법하게 봉행 예정"

지난 3일 발생한 진주 성전암 화재 사건이 '광신도'에 의한 방화인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방화 용의자로 사건 당일 체포된 3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전암 방화사건을 저지르기 전인 2일에도 경남 산청지역 산중에 위치한 외딴 한옥 민가를 사찰로 오인해 불을 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경찰은 용의자의 종교성향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모르쇠로 일관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대다수 언론도 "정신병자에 의한 방화" "4년 전 주지 스님과의 말다툼이 원인"이라는 보도태도를 보여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진주경찰서에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진주경찰서의 성전암 사건 담당자는 "언론에 일체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불교언론에도 조서를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용의자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용의자의 부친에게 전화로 문의했지만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아닐 것"이라고만 답해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사건 원인과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진 여수 향일암 화재처럼 이번 방화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려워질까 우려된다.

한편 화마의 피해를 입은 성전암은 복구 노력이 한창이다. 비보를 접한 불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복원불사에 대한 의지를 돋우고 있다. 성전암 주지 성공스님은 "잘못된 맹신으로 일생을 마친 젊은이가 다시 인간본연의 양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받은 부처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임시법당을 세우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여법하게 봉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학 경남서부지사장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들…봉축등 밝히고 '자비사회 구현' 발원

총무원장 자승스님 "순직경찰 추모…범죄없는 사회 되길"

"이 땅에서 모든 부정부패를 없애고 밝고 깨끗한 기운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폭력과 다툼을 없애고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13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봉행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전에 이같은 간절한 발원을 올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경찰 불자로서 충실히 책임을 다할 것 다짐하는 발원이었다.

경찰청불교회(회장 허영범)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과 서울 도선사(주지 선묵스님)가 후원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서울 도선사 동광스님과 계성스님, 현종스님, 혜만스님, 여행스님 등 경찰청 경승스님, 강희락 경찰청장, 모강인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 및 전·의경 불자, 도선사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임희웅 포교사단장,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임장수 전국교정인불자회장, 박상필 국제포교사회장 등 주요 재가단체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부처님께서 이 땅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일보다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몸,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고 우리 사회가 범죄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가 모르게 열악한 환경과 범죄, 시위, 사건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들이 지난해까지 190여 명에 달한다"면서 "14만 경찰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찰불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깨달음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가르침"이라며 "경찰 불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사회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문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황룡사 9층 목탑 모형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경찰불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 불교회원 정미자, 서현숙씨에게 각각 총무원장, 포교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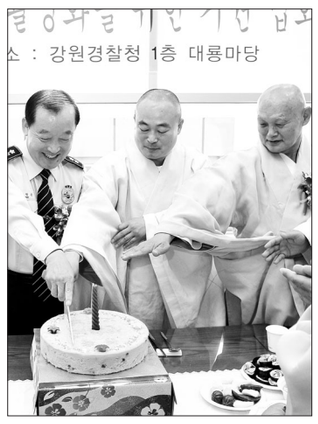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는 법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충남도청불자회(회장 권희태)와 충남지방경찰청불교회(회장 임연빈)는 지난 12일 도청 앞마당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기원하는 봉축 연등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서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옹산스님과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공무원과 경찰불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도 12일 지방청 내 설법전에서 경승실장인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과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경찰불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에 앞서 강원불교연합회(회장 정념스님)와 강원지방경찰청경승지단(단장 홍진스님)은 11일 강원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법질서 확립과 경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경승실(실장 상덕스님)은 11일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4회 봉축법회 및 봉축문화축제'를 열었다. 또한 서울 성동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덕스님)는 14일 구청 5층 강당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봉축법회 및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고양경찰서 경승실(위원장 대오스님)도 13일 경찰서에서 '무사고 기원 및 시민행복을 위한 봉불식 및 봉축법회'를 개최했다.

박인탁·허정철·엄태규 기자
이시영 충남지사장



지난 13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봉행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강희락 경찰청장이 관불의식을 진행하는 모습.(사진 오른쪽) 위 사진은 지난 11일 강원지방경찰청경승지단의 봉축법회.

경찰청불교회 봉축법회

'G20정상회담 성공' 발원

지역경찰서도 봉축점등

"소통·화합세상 만들자"

"이웃에 부처님 자비를…"

두송복지관, 불우이웃에 쌀 전달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맹자)은 지난 12일 복지관에서 관내 저소득 노인 108세대에 총1080kg의 쌀을 전달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이번 기쁨의 쌀 108세대 나누기 사업은 복지관 운영지원사찰인 부산 관음사로부터 후원받은 쌀 1080kg을 관내 저소득 노인 108세대에게 선물했다. 두송복지관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대표이사 지현스님(관음사 주지)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따뜻한 자비심을 담아 쌀을 준비했다"면서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밀양 용궁사는 지난 8일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극락보전 아미타 삼존불 점안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밀양 용궁사 극락보전 현판식 "수행·기도도량으로 일신"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스님)는 지난 8일 극락보전 아미타 삼존불 점안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증명법사로,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60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정무스님은 "구법당이 무량수각이었기에 아미타 삼존불을 새로 조성해 모시기로 원력을 세우고 점안식과 현판식을 열게 됐다"며 "극락보전 현판을 내려준 은사 중산스님, 점안을 증명한 법사 혜총스님의 뜻을 받들어 용궁사를 수행·교육·기도도량으로 일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증명법사 혜총스님은 "용궁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밀양지역 도심포교를 책임진 포교도량이었다"며 "전통을 찾아 명맥을 잇고자 하는 주지 스님의 원력과 나날이 발전하는 용궁사를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격려했다.

정병은 경남동부·울산지사장

불기2554(2010)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및 3급 승가고시 응시자 소임 현황 취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4(2010)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든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에 대한 소임 현황 취합을 공고합니다.

1. 결계신고

◈신 고 일 : 불기2554(2010)년 5월18일 (화, 음력 4. 5)
~5월28일 (금, 음력 4. 15)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 관련양식은 조계종홈페이지 공지사항 (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동시충족)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 · 사미니는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 소임현황 취합
1) 대상 : 법계 견덕(계덕)이상 중덕(정덕) 품서 이전 종단 소속스님
2) 소임 취합기간 : 구족계 수계 후 금년 하안거 결제일까지의 소임 현황
3) 소임 증빙제출서류
① 임명장(대장)과 보시대장(금전출납부 혹은 통장 사본 등)사본 각 1부씩 함께 제출 (단, 해임시 해임일자 기록된 대장 제출)
② 대중명부와 보시대장(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등) 각 1부씩 함께 제출
③ 해외 파견자: 지방 종무기관에서 발행한 위촉장(혹은 추천서)과 여권사본 각1부씩 함께 제출
※대상자 스님은 결계현황보고서 또는 결계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4(2010)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